

[에버렛 스완슨 본인 및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 소개]

에버렛 스완슨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세부 사항

1961년 9월 15일

저는 1913년 12월 13일 일리노이주 시카모어(Sycamore) 근처의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스웨덴 이민자였습니다. 저에게는 네 명의 형제와 한 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 중 세 명이 목사이며, 한 명은 사업가입니다.

저는 그 지역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홉 살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열다섯 살 때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한 매우 분명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육을 마치면서 감옥, 양로원, 길거리와 많은 교회들 그리고 문이 열려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미국 전역의 교회, 학교, 강당에서 전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전임 전도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워싱턴 주와 시카고시에 있는 두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이로써 총 13년간 행복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950년 저는 전도 사역으로 돌아가라는 분명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계획을 해 나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싶은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951년 가을에 일본으로 저를 향하게 했고, 나중에는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 근동 및 유럽까지 가게 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저는 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도쿄에서 한국 선교사 1피터 반 리에롭(Peter Van Lierop) 박사가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구의 로버트 라이스(Robert Rice) 목사님으로부터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과 함께 전쟁의 결과를 직접 보라는 초청으로 이어졌습니다.

¹피터 반 리에롭(Peter Van Lierop, 한국명: 반피득, 1918~2012): 1949년 미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담당하였으며, 1954년 학교법인 경안학원(경안고, 경안여고, 경안중, 경안여중)을 설립했다(<https://m.kmib.co.kr/view.asp?arcid=0006331366>).

1951년 10월 한국에 가서 3주를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많은 한국 교회들을 다녔고, 또한 다수의 한국군 부대와 더불어 최전방에 있는 우리 부대도 돌아보았습니다.

이듬해 저는 국방부 군종실장 김형도 목사로부터 국군 순방을 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초청을 받아들였고, 1952년 많은 한국 군대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두 번의 방문을 통해 저는 길거리에 떠도는 엄청난 수의 고아와 수많은 전쟁 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곳곳에 있는 한국 군병원을 방문했고, 부상자들과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한 선교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완슨 목사, 당신은 이 엄청난 필요와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라는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 제가 "그 일에 대해 뭔가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면서 저는 비록 자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선 한국의 거지 소년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한 날 "한국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현금 50달러를 받았습니다. 시카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1,000달러짜리 수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국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며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1952년 가을부터 한국에 기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해마다 그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1,000달러는 삼척 근처의 작은 마을인 북평(Puk Pyung)에 큰 집을 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 여기에 어린이들을 데려와 최초의 보육원인 신애원이 조직되었습니다. 1953년 우리는 대구에 있는 거지 소년들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중생 소년 건설단(New Life Boys and Girls Home)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흥집회를 하는 곳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렸습니다. 저는 밤마다 새로운 필요와 기회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돕고 싶어 했습니다.

1956년에 이르러 저는 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1956년 4월 19일, 일리노이주에서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를 비영리 법인으로 인가했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대표에 에버렛 스완슨(Everett F. Swanson) 목사, 부대표에 미리암 스완슨(Miriam Swanson), 총무 겸 서기에 G.A. 햄월 의학박사(Dr. G.A. Hemwall, M.D.), 그리고 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비드 F. 버스비(David F. Busby),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
- 로버트 E. 코너(Robert E. Corner), 기독교인 변호사
- 토리 존슨(Torry Johnson), 전도자
- 엘머 T. 올슨(Elmer T. Olson), CPA, 기독교인 감사
- 클레이트 A. 리슬리(Clate A. Risley), 사무국장, 주일학교 교사
- 로런스 F. 스완슨 목사(Lawrence F. Swanson), 사무국장, 성경학교 및 청소년 사역, 침례교 총회 소속
- 피터 반 리에롭(Peter Van Lierop) 박사, 한국 선교사
- 피터 강(Peter Kang), 한국 소장

이 일은 오늘날까지 계속 성장하여 1961년 9월 현재 108개의 보육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원과 거지 소년들을 위한 보육원 101개, 한센병 환자의 미감염 자녀들을 위한 보육원 3개, 과부를 위한 보육원 2개, 청각 장애/언어 장애/시각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원 1개, 그리고 미혼모 소녀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육원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육원에 통합된 4개의 다른 보육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아래는 지난 몇 년간 저희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연도	내용	금액(\$)
1952	삼척 근처 북평(Puk Pyung)에서 첫 번째 보육원 시작함.	1,000.00
1953	봄에 어린이 몇 명을 후원하기 시작하여 2개 보육원 추가됨.	7,340.00
1954	봄부터 삼척에 대한 정기 지원(월 235달러)이 시작됨. 5월에 전도사 지원 시작함.	12,020.00
1955	2개 보육원 추가 지원	12,105.00
1956	4개 보육원 추가 지원	24,388.00
1957	총 12개 보육원 지원	67,125.00
1958	총 16개 보육원 지원	76,648.00
1959	총 42개 보육원 지원	161,495.00
1960	총 71개 보육원 홈 지원	344,906.00
1961	9월 20일까지	
	전도사 \$19,498.50	
	고아 \$465,720.69	
	합계	485,219.19
	총 108개 보육원에서 10,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약 1,000명의 직원이 근무 중	
	총계	1,192,246.19

1961년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린이들의 옷을 구입하기 위해 65,912달러를 보내고, 고아와 전도사들을 위해 총 103,564달러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3년 동안 108개 보육원에서 10,000명의 어린이들의 필요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타민을 배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600만 개의 고효능 종합비타민 캡슐, 어린이용 비타민 시럽 21,600캔, 감기약 20,000정, 치약 36,00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제 조사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한국 사역 초기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작은 마을로 전도사들이 들어가는 것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계속 도왔고, 이 도움의 결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쁩니다. 1961년 9월 현재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이들 전도사 190명과 학생 3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성경 연구소, 신학교 및 대학에서 기독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를 돕고 격려한 많은 선교사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보고서를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대구의 ²로버트 라이스(Robert Rice) 목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고, 기금을 관리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기타 여러 형태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은 항상 우리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보여주신 그 친절함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국군 순방은 최전방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곳이든 군목들과 지휘관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성기(Kang Sung Ki) 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58년 봄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이 청년을 만났고,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여러 도시의 부흥 집회에서 제 통역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우선 번역 작업을 돕기 시작했고, 이후 저는 그를 우리 한국 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충실한 일꾼들입니다. 강 소장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필요와 기회에 대한 비전과 도전이 없었다면 우리의 일은 지금과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국 사람들 모두에 대한 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지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

²로버트 프랭클린 라이스(Robert Franklin Rice, 한국명: 나익수, 1921~): 1950년 한국으로 파송된 미국 복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한국 전쟁 중 기독교부흥협회(CRF, Christian Revival Fellowship)를 창설했고, 1953년에는 문서출판운동(<승리자 예수(Jesus Victor)>)을 시작함(<http://www.1907revival.com/bbs/view.html?idxno=3375>).

는 것은 매우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자 소망은 이 사역이 과거와 같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1961년 9월 15일 오늘, 저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8번째로 방문하기 위해 20일 출국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108개 보육원의 원장님들과 우리가 돕는 190명의 전도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고 저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 등지에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